

# 지역자원 활용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일본 가미야마 정(神山町) 빈집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 Mutual Cooper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Local Government toward Regional Resource Application: Focused on Renovating Vacant Old Houses in Kamiyama Town, Japan

네모토 마사쓰구\*  
Nemoto, Masatsugu

### 요 지

본 연구는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밝히기 위해 일본 가미야마 정을 대상으로 특히 빈집재생 사례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인 NPO법인이 지역자원 활용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빈집재생에 있어서는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사업을 위탁받음으로써 공모를 통한 예술가 체재, 각종 장인 이주, 청년 구직훈련 그리고 새틀라이트 오피스의 집적 등 파급효과를 올리고 있다. 기존 지역 특산물 개발, 관광 중심의 지역 활성화와는 명확히 획을 그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뜻 있는 교류를 중심으로 빈집 리모델링, 부동산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가미야마 사례에서부터 향후 '교류'라는 개념을 포함한 종합적 토지정보 활용 가능성이 시사된다.

**핵심용어** : 지역자원, 사회적 경제조직, 지방자치단체, 빈집재생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mutual cooperation betwee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local government toward regional resource application especially focused on renovating vacant old houses in Kamiyama town, Japan. The founding is that a non profit organization manages a migration support center contracted from local government successfully promotes various projects as residency opportunities exist to invite artists who create their works, craftsman who has ability to respond native inhabitant's needs, and young people who participate work-related training. This organization promotes renovating vacant old houses and provides real estate information not only for this kind of residency opportunities but also for satellite office from metropolis. Including a key concept of exchange in integrate cadastral information system can be considerable important.

**Keywords** : Regional Resourc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Local Government, Renovating Vacant Old Houses

투고 : 2013년 5월 2일 · 심사(수정) : 2013년 6월 6일(6월 17일) · 게재확정 : 2013년 6월 25일

\* 정희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E-mail : motomotonemoto@gmail.com)

## 1. 서론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제는 첫째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둘째 지역경제 재생(산업구조 혁신), 셋째 주민협업에 의한 지역사회 형성과 효율적 재정운영이다. 이는 경제침체가 이어질 경우 지방주민에게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1사1촌, 도농교류 등 각종 과소 대책, 진흥책이 시도되어 왔지만 쉽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의 축적 위에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중 기존 관광 진흥이나 특산품 개발에서 벗어나 교류 산업이나 새로운 생활양식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제공하려 하는 동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그 중심적 역할을 이른바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주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만 이익을 보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일본의 변화 속에서 지역자원 특히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미야마 정(神山町)에 주목한다. 가미야마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지만 광회선 인터넷 부설, 적극적인 빈집 입주자 모집 등으로 예술가 체류, 직업인 이주자 전입, 청년 귀직훈련 그리고 새틀라이트 오피스라고 하는 대도시 소재 기업의 원격 사무실이 집적해 가고 있다. 이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종합적 토지정보 활용 가능성 내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지역자원 활용과 사회적 경제조직

#### 2.1.1 지역자원의 개념

일반적으로 지역자원은 자연자원 외에 지역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것 그리고 인적자원도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관련개념으로 관광상품은 수송, 숙박시설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의 복합적 요소가 시간적,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판매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sup>1)</sup>

또한 지역 특산품은 농어산품 등을 활용해 전통이나 문화 가치가 부여된 것, 그리고 유형인 것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체험을 하는 무형의 형태도 있을 수 있다.<sup>2)</sup>

일본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은 지역자원을 세 가지 유형 즉 첫째로 농림수산물 또는 광공업품(鑛工業品), 둘째로 광공업품 생산기술, 그리고 셋째로 문화재, 자연풍경, 온천 기타 관광자원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지역자원은 1차 산업에서부터 가공, 유통, 문화산업으로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영역에 파급효과가 있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되었고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전체적 소비량 축소가 불가피하고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내용이 중요시하게 되고 있다. 기존과 같은 생산, 판매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새로운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 독거 등으로 ‘소필약자’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기존 관광이 아닌 지역간 교류, 세대간 교류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sup>3)</sup>

이에 대해 교류 산업, 생활양식 제공 등을 추진

1) 정한철, 2009, *향토음식축제의 관광상품성 및 인지도에 관한 연구-충남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p.8.

2) 중소기업診断協會千葉県支部, 2007, *地域特産品の流通チャネルの方向づけ報告書*, p.4.

하는 소위 사회적 경제조직이 대두하고 있다. 기존 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2.1.2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전반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économie sociale'에 기원을 두며, 주로 자본주의경제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 및 모순의 해결을 위한 이론으로 제창되었다. 그 실체로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association) 등을 들 수 있는데, 당시 이미 제도화된 조직으로서 일정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정책의 파탄·경제위기와 자본주의 여러 국가의 복지제도 약체화 등, 정치적 조건변화에 의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sup>4)</sup> 그리하여 사회적 경제부문의 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적·정치적 조건향상을 배경으로 1990년대에는 사회적 경제부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복지재편하의 사회적 경제부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sup>5)</sup>

첫 번째 국가재정의 악화,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거대자본의 국제적 진출과 탈(脫)공업화, 그 결과로서 확대되는 양극화·지역 간 격차와 더욱 심각해지는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 이들 국가에서는 그 역할의 담당자로서 국가와 기업 외에 '제3의

부문'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제3의 부문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의 진흥이 추진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국가와 시민사회조직의 관계가 크게 변한 것이다. 특히 혼합 경제화를 축으로 한 복지국가 정책의 전환과정을 반영해, 공공 서비스 공급과 사회적 배제의 극복 등, 공공성 실현에 관한 사업의 주체가 국가(자치단체)에서부터 시민사회조직으로 이행(移行)되는 가운데, '시장경제를 지향한 대안'보다는 '공공 서비스 대안'이라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역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주체로서 간주되고,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 스스로도 배제의 문제해결을 구체적 실천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행정 및 영리기업과 구분되며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영역에 속하는 실체로서는 대표적으로 NPO법인(특정 비영리 활동법인)이 있다.

NPO법은 간편한 방법으로 법인격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NPO법인)'을 부여(인증)하는 것으로 이 제도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면 민법상 계약 주체로 기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신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 법은 시민단체가 사업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연 획기적 법률

3) 帶刀治, 2013, "大震災・天津波、液状化被害、東電福島第一原発放射性物質流出事故と防災体制一茨城の事例一, 茨城大学人文学部紀要, 第55号, p.57.

4) EC/EU 내에서도 1980년대 이후, 사회적 경제에 관한 회의·위원회 등의 개최와 '사회적 경제 부국'의 설치(1989년) 등을 통해 점차 사회적 경제조직의 진흥을 위한 체제가 정비되었다. 특히 1993년의 유럽 위원회 백서 '성장, 경쟁력, 그리고 고용'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EU 제국 내의 공통전략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 위원회가 이 백서를 작성한 '유일무이한 이유는 실업'이라고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EU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중에서 최우선의 과제가 실업문제였고, 이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는 정책전략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부문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이후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균형적 발전, 효과적인 협동,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정신을 체현하는 실천주체로서 사회적 경제부문을 진흥할 필요성과 정책적 역할이 고용정책과 연관되면서 명확히 제시되었다(大高研道, 2005, "社会的排除と社会的經濟—北アイルランドにおける社会的經濟セクターの現段階", 北海学園大学経営論集, 第2卷 第4号, pp.72-73).

5) 大高研道, 2005, "社会的排除と社会的經濟—北アイルランドにおける社会的經濟セクターの現段階", 北海学園大学経営論集, 第2卷 第4号, pp.71-76.

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동 법에 의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지역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의 의의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일본 법제도상 처음으로 인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6)</sup>

NPO법인 인증 요건은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2②), 둘째, 종교 및 정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2②), 셋째, 사원 10명 이상으로(§12), 넷째, 폭력단 단체가 아니어야 한다(§12) 등이다. 2013년 2월말 기준 NPO법인 수는 약 4만 7,000개가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 중 유럽의 대표적인 존재인 협동조합과 일본 및 미국의 NPO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협동조합과 NPO

구 분	협동조합	NPO	
		미국	일본
지역적 기원	유럽	미국	일본
배경	사회적 배제	실용주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특징	1인 1표, 민주적 경영	세계 혜택	법인격 부여
법제도	협동조합법 등	내국세법 501c(3)	NPO법

## 2.2 선행연구 검토

### 2.2.1 지역자원 활용

기존 관광의 문제점으로 박문기<sup>7)</sup>는 관광업체에게 이익이 들어가고 지역주민에게 환언되지 않

는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지역자원 활용에 관련 해金子郁容<sup>8)</sup>가 제시한 4 가지 방안으로 첫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둘째 공식적 조직의 참여, 셋째, 각자 역할분담과 제도설정, 넷째, 계속성이 있다.

Putnam<sup>9)</sup>은 사람들의 협조행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사회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신뢰, 상부상조의 사회규범, 네트워크 등을 제시했다. 結城登美雄<sup>10)</sup>은 바람직한 지역의 7가지 조건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거주환경 정비, 문화 공유, 배움터 마련, 친구, 자연과 풍토 보호, 그리고 행정을 제시했다.

지역자원 중 그동안 비교적 등한시되어 온 빈집에 주목하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건축물<sup>11)</sup>로 정의되는 빈집의 관리 적정화를 도모하고 이용 희망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연결시킬 수 있다.

빈집재생에 관해 황정임 외<sup>12)</sup>는 완주군 13개 읍면을 조사한 결과 빈집에 외지인이 들어오는데 대한 소유주들의 반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이주 희망 도시민에 대한 빈집의 임대/매매가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이주 희망 도시민에 대한 빈집 임대/매매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빈집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보통 이상의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이에 이주 희망자 은행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매매·임대 중개가 지원되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빈집

6) 帯刀治, 2004, “まちづくりに取り組むNPO”, *社会運動研究入門—社会運動研究の理論と技法*, 文化書房博文社, p.228.  
 7) 박문기, 2010, “자자체 브랜드 성공방안”, *마케팅 리더십*, pp.16-18.  
 8) 金子郁容, 2010, “いいコミュニティの作り方”, *コミュニティのちから—遠慮がちな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の発見*, 慶応義塾大学出版会, pp.297-304.  
 9) Robert Putnam,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0) 結城登美雄, 2009, *地元学からの出発—この土地を生きた人びとの声に耳を傾ける*, 農文協, p.19.  
 11)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 조업을 정지한 채 방치된 공장, 창고 등도 빈집에 해당된다.  
 12) 황정임·최윤지·김효정, (2012), “농촌 빈집 소유자들의 빈집 관리·활용 실태 및 인식 분석-전북 완주군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제19권 제4호.

의 유지나 수리를 전제로 빈집을 임대하고자 하는 의사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약 형태, 기간 등을 다양화한 임대 방식의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빈집 재생과 관련한 한국의 상황은 도입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편, 일본에서는 이미 빈집은행과 부동산 업체의 연계 등이 이루어고 있는 지역도 있다.<sup>13)</sup>

그러나 일본의 기존 형태는 지자체가 방재, 방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역 활성화 효과는 한정적이다.

이에 비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형태는 주민이 운영하고 ‘어떠한 사람이 이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희망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빈집 활용 방식은 일반 민간업체나 지자체 단독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2.2.2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자체에서 지원 받을 경우 행정에 의한 관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면 납세자가 세금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자체의 관계에 있어 핵심적 관계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행정에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율성과 납세자에 대한 설명책임을 어떻게 양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정부·행정의 관계는 자율성을 지킬 것이냐 종속될 것이냐 하는 단순한 대립관계가 아니라, 자율성과 설명책임을 두 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하는 협력관계에 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정부자금에 대한 의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부자금에 대한 설명책임을 확보하면서 조직으로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sup>14)</sup>

따라서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이 별도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정된 틀 안에서 협력하는 것도 아닌, 서로 공개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그 협력의 진가를 발휘하는 길로 인식되고 있다.

## 3. 가미야마 사례

본 연구의 대상인 가미야마 정은 도쿠시마(徳島) 공항에서 차로 약 80분 거리에 있다. 특산 농산물인 영굴 생산량이 국내 1위이지만 인구 약 6,300명 중 약 40%가 65세 이상인 과소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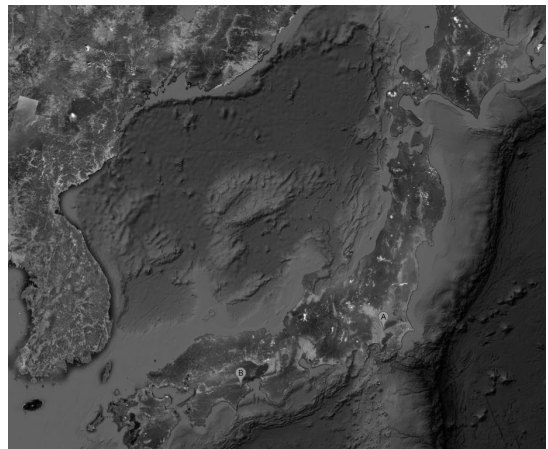


그림 1. 가미야마(B), 도쿄(A) 위치

그러나 청년 인재육성, 고속 인터넷망과 전통 가옥의 빈집을 활용한 IT 기업 유치, 그리고 면접을 통한 이주자 모집 등 이른바 ‘교류’라는 형태를

13) 藤本秀一, 2012, 空き家の再生・活用を通じた地域運営の事例, オペレーションズ・リサーチ: 経営の科学, 第57巻 第3号, pp.138-143.

14) 後房雄, 2004, 自立と協働の両立は可能か—日本のNPOセクターが直面する課題, 市政研究 第143号, pp.23-33.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NPO법인 그린밸리'가 있다.

가미야마 정 지역자원을 유형물과 무형물로 나누어 이에 대한 각 주체의 역할을 구분하면 다음 표 2와 같다.<sup>15)</sup>

표 2. 농업 진흥 시책

항 목	내 용	주 체*
판매력 강화	• 지자체 농협 연계 (6차산업(생산·가공·판매) 검토, 실시	농협, 지자체, 생산자
	•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촉진과 수도권 시장 개척	지자체, 농협, 생산자
	• 전시판매와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생산자, 지자체, 농협
	• 도로 휴게소 및 농산물 직접 판매소 활용	지자체, 생산자
생산력 강화	• 지역 브랜드 상품 창조, 품토·역사 등 부가가치 제고	지자체, 생산자
	• 농업, 기계 등을 공동 지원	지자체, 생산자, 농협
	• 친환경적, 시장 경쟁력 높은 농산물 개발, 제도 활용 촉진	지자체
	• 영농지도	농협, 지자체
후계자 육성	• 농업관련시설·설비 정비·개수 위한 보조금 이용 촉진	지자체
	• 안심 농산물 인증 취득촉진	지자체(광역·기초)
	• 고령 농업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신규 작물 도입	농협, 지자체
	• 신규 취농자 확보를 위한 제도 활용	지자체, 민간단체
	• 취농상담창구 설치, 농업체험 강습회 개최, 취농 준비금(대출) 요건완화 및 증액	지자체
	• 중산간 농업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농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연계 강화	지자체, 대학
농업환경 보전	• 경작 방지지 방지·재생 위한 보조제도 구축, 특구신청, 농협 계약 및 위탁사업 촉진, 가정채원 대여	지자체, 농협, 생산자
	• 유해 조수 피해 방지대책 지원으로 강습회, 지도원 육성, 전기 울타리 설치 보조	지자체
새로운 농업 창조	• 그린 투어리즘 개발 위한 농촌풍경 회복, 지역지혜 발굴, 외부인 연계, 수학여행 수용 등	NPO, 지자체, 생산자, 농협

\* 주체 표기는 왼쪽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순으로 나열하였음.  
 자료 : 神山町, 2011, 第4次神山町總合計劃, pp.38-40.

### 3.1 유형 지역자원

가미야마 정에 있는 유형 특산물은 먼저 생산량 전국 1위인 영굴을 비롯해 각종 농수산물, 자

연환경으로서 산과 하천, 온천, 역사적 유적으로 사철과 신사, 그리고 전통가옥 빈집 등이 있다. 각 특산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통 내지 활용되고 있다.

15) 神山町, 2011, 第4次神山町總合計劃.

### 3.1.1 농산물

가미야마 정 농업은 중산간(中山間) 지역에 특유한 경사지를 이용한 과수와 화훼류 중심으로 경영경지면적과 산출액이 영세한 경영규모가 대부분이고, 고유자원으로서 영굴, 화훼, 표고버섯, 매실 등이 대표적이다.

근년 농업을 둘러싼 농가 고령화, 생산의욕 저하로 인한 경영규모 축소, 후계자 부족을 거쳐 더욱 경영을 축소하게 되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각 농가의 경영노력에 더해 가미야마 정 전체적으로 유통·판매력 강화, 시장 경쟁력 높은 농산물 생산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미야마 정은 진흥시책으로 판매력 강화, 생산력 강화, 후계자 육성, 농업환경 보전 그리고 새로운 농업 창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임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있다.

### 3.1.2 관광·상공업

가미야마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2000년 약

53만 명에서부터 2009년 약 10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 내역은 저명한 쇼잔지(燒山寺) 약 20만 명, 가미야마 온천 약 20만 명, 도로 휴게소(道の駅) 약 40만 명이였다.

가미야마의 교류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은 주민, 지역, NPO법인 등 민간단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형태의 관광에서부터 체재형·체험형 관광으로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가미야마에 있는 상공업 사업소 수는 적고 그 경영규모도 작다. 소비자 구매행동이 가미야마 외 지역 유출, 경기침체, 사업자 고령화에 따른 사업의욕 저하 등이 겹쳐 사업소 수와 매장규모는 서서히 감소되고 있다. 한편 관광객이 많은 관광시설 주변에서는 상점과 식당 등이 신규 개업하는 동향이 있다.

제4차 종합계획은 관광·상공업 진흥시책으로 관광자원 충실화, 활동 주체성 발휘, 관심도·만족도 제고, 상공업 활동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관광·상공업 진흥 시책

항 목	내 용	주 체*
관광 자원 충실화	• 도로 휴게소 기능제고 위한 시설개수와 확장, 주민창업 기회 제공 추진, 기타 시설에도 주차장, 화장실 증설	지자체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한 지역자원(역사, 문화, 경관, 예술가 체재형 작품작성 전시, 사찰, 지역주민, 삶의 모습 등)을 활용해 근린지자체, 여행사 연계에 의한 상품개발	관광협회, 민간단체, 지자체
	• 체험·체재형 관광개발 위한 거점시설 개수확장, 휴게시설 충실화, 휴교 학교 건물 활용, 그린 투어리즘 실시 추진	관광협회, 민간단체, 지자체
	• 마음을 치유하는 길을 설정하기 위한 하천, 반딧불과 낚시, 유채꽃, 벚꽃 등 연계한 경로(산책, 마라톤, 자전거) 연구, 지정	관광협회, 민간단체, 지자체
활동 주체성 발휘	• 관광협회 활동강화 위한 운영보조와 조직강화 재편	지자체
	• 민, 산, 관 연계강화 위한 NPO법인을 비롯해 내외 기업, 여행사, 광역자치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관광협회, NPO, 지자체

항 목	내 용	주 체*
관심도 만족도 제고	• 가미야마 온천을 비롯한 지역관광시설에 대한 주민과 관광객 의식조사 실시	관광협회, 지자체
	• 지역 볼런티어 가이드 육성	관광협회, 지자체
	• 홍보 위한 인터넷 활용, 광역 관광협회 연계강화, 팬클럽	관광협회, 민간단체, 지자체
	•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마을을 치유하는 마을 만들기 추진	관광협회, 민간단체, 지자체
	• 관광안내표시에 친환경적이고 통일적인 디자인으로 목재 이용 촉진, 외국어 표기 검토	관광협회, 지자체
상공업 활동 지원	• 창업 및 경영강화 지원 위한 용자제도 계속 및 이용촉진	지자체
	• 가공품, 특산품 개발지원 위한 산학 협동연구 체제구축과 토산품 경진 대회 실시	상공회, 지자체
	•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위한 주민용 상품권 발행, 먹거리 지도 등 활동 지원	지자체
	• 출장식 판매 실시, 임차를 통한 상점 집약, 주민과 상점이 공동운영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게 만들기 등	상공회, 지자체

\* 주체 표기는 왼쪽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순으로 나열하였음.

자료 : 神山町, 2011, 第4次神山町總合計劃, pp.44-47.

### 3.2 무형 지역자원

#### 3.2.1 창업지원 · 커뮤니티 비즈니스 진흥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간 연계, 특산품 개발, 기업유치 등 기존의 산업진흥책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과 비즈니스의 융합(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을 비롯한 새로운 진흥책이 요구되고 있다.

#### 3.2.2 교류활동 충실화

가미야마에서 특징적 교류활동인 KAIR<sup>16)</sup> 사업을 중심으로 그 활동범위를 매년 확대해 왔다. 다양한 교류를 통해 가미야마의 매력을 알게 된 수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교

류활동은 가미야마의 좋은 점을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미야마만의 행사들을 기록함으로써 내외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교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향후 실제로 가미야마를 방문해 ‘가미야마는 좋았다’, ‘가미야마는 멋진 곳’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도록 주민과 민간단체의 주체적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주민활동 활성화에서부터 시작돼 평판이 높아지고, 방문자와 교류기회가 많아짐으로써 활동인구가 더욱 늘어나는 양호한 순환이 이루어져 이것이 정주(定住) 촉진과 인재육성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 Kamiyama Artist In Residence(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의 약칭.



표 4. 창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진흥 시책

항 목	내 용	주 체*
창업지원	• 지역 내에서 창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사무소 대여와 휴교시설 활용	지자체
	•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희망자 지도·지원	지자체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 고속 인터넷 기반을 활용한 새틀라이트 오피스 선치 등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상점가 재생 연구·시행, 실시	NPO, 지자체
	• 방재, 안전분야 커뮤니티 비즈니스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회 설치 및 사례연구	지구, 지자체
	•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지원을 위한 지도·상담, 정보제공	상공회, 지자체
	• 선진 성공사례 연구,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조직 구성	관계기관, 지자체

\* 주체 표기는 왼쪽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순으로 나열하였음.  
 자료 : 神山町, 2011, 第4次神山町總合計劃, pp.48-49.

### 3.2.2.1 그린밸리 개요

NPO법인 그린밸리 이사장은 일찍이 건설회사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로정비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과소화는 진행될 뿐 과거 2만을 넘던 인구는 1만을 밑돌게 되었다. 빈집이 계속 늘어나 젊은 사람들은 격감했다. 그 무렵 1997년에 광역자치단체인 도쿠시마 현(徳島県)이 산간지역 지역진흥책을 제시하자 바로 행동을 취했다. 토건사업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행정에 맡기지 않는 방법으로 구체안을 제안하는 ‘국제문화촌 위원회’를 구성, 주민 약 20명과 상의했다.

### 3.2.2.2 KAIR 활동

가미야마 KAIR는 NPO법인 그린밸리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예술 사업이다. 매년 8월말부터 두달 동안 국내외 3명의 예술가가 가미야마에 체류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10월 하순 전람회를 연다.

‘풍요로운 자연 이외 가미야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국내외 예술가에게 홍보하고 교통비와 작품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999년에 시작한 이래

예술가 42명이 활동했다. 가미야마산 목재가 사용된 작품, 돌 조각 등은 야외에 전시되어 전국에서 방문자가 잇따르고 있다.

KAIR의 특징은 지역주민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수 있지만, 가미야마에서는 제작기간을 통한 주민과 예술가 간 교류의 질이 높다는 것이 강점이다. 주민들은 그 과정을 즐거워하고 있기도 하다.

### 3.2.2.3 이주자 모집

2007년부터는 정착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단,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취하지 않았다. ‘가미야마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뜻이 있는 사람’을 찾아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신중히 인선을 했다.

보조금으로 젊은 가족을 유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미야마의 미래상을 그려 ‘이에 필요한 사람은 이러한 직업인’이라는 식으로 인터넷에서 공모한 것이다.<sup>17)</sup>

17) 가미야마 우에츠노(上角) 상점가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라져 버린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빈집을 개수하고 가미야마

‘갓 구운 빵을 먹고 싶다’는 주민 목소리를 듣고 본격적인 돌가마 빵 장인을 영입했다. 그 외 양과자 장인, 무농약 야채 재배농자 등 약 70명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가게를 꾸미기 위해 필요한 재료 조달과 운반 등에 지역주민이 참여했고 새로운 이웃 사람과 교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그리고 2010년에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빈집재생)을 통해 기업유치(워크 인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NPO법인 그린밸리와 건축가 그룹의 공동사업으로 실시되었고 2012년까지 수도권에 거점을 둔 IT 관련 벤처기업 등 6개 회사가 새틀라이트 오피스(도시지역에 있는 회사의 원격근무 사무소)를 개설,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었다. 가미야마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작에 따라 전역에 광회선 인터넷 망이 부설되어 있다는 것이 IT기업이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점차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되었고 개업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카페가 문을 열게 되기도 했다.

표 5. 빈집재생 입거 기업

구분	업무내용	본사위치
A사	IT시스템 개발·제공	도쿄
B사	고령자 안부확인 시스템 개발·제공	도쿄
C사	명함관리 시스템 개발·제공	도쿄
D사	NPO법인 기부시스템 개발·제공, 컨설팅	도쿄
E사	온라인 쇼핑	가미야마

가 필요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기업가를 정해 공모, 이주를 지원한다. 가미야마 정 이주교류지원센터가 산촌생활에 적합한 민가, 부동산을 소개한다.

나아가 IT기업 새틀라이트 오피스로 사용하는 빈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전에 봉제 공장이었던 620㎡ 건물을 ‘가미야마 밸리 새틀라이트 오피스 콤플렉스’라는 공동사무실로 개수해 2013년에 개소되었다.

또한 가미야마 상점가에 있는 오래된 극장 ‘오리자(寄井座)’를 중심으로 한 상점가 재생프로젝트 ‘극장 상점가’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이주자와 새틀라이트 오피스 기업에 의한 협력을 얻어 이루어지고 있다.

가미야마 새틀라이트 오피스는 풍요로운 자연, 저렴한 인건비, 안전한 야채,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누리면서 즐겁게 일하는 데 최적의 장소이다. 직원이 거주하는 주택비용은 대폭 떨어지고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인터넷 속도는 현격히 빨라진다. 향후 대도시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기업 내 부서가 중산간(中山間) 지역에 오피스를 이전하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가미야마 밸리 새틀라이트 오피스 콤플렉스’는 10개 정도 회사가 입거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지역주민에게서 신뢰받고 있는 NPO법인 그린밸리가 빈집을 빌려 그것을 입주자에게 임대함으로써 리모델링 비용을 회수한다. 한정된 예산, 재료, 인원을 조합시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새틀라이트 오피스의 효과를 보면 임대료와 기타 경비를 합쳐도 한 달 5만 엔 정도로 수도권에 비해 극히 저렴하다. 그리고 가미야마 전역에 부설된 광회선은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도시에 비해 5~10배 빠르다. 가장 큰 매력은 NPO법인 그린밸리가 추진하는 빈집재생 프로젝트이다.

A사는 새틀라이트 오피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로 재택근무제도(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도입해

사내규칙 등도 육아와 근무의 양립이 가능한 제도로 변경했다. 또한 페이퍼리스(업무에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음)를 철저히 추진해 원격업무를 가능하게 했다.<sup>18)</sup>

표 6. 새틀라이트 오피스 효과

구분	내 용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4명 채용, 도쿄에서는 몇 백만엔 들어도 좋은 인재 찾기 힘들(지명도가 없으면 유명회사에 가 버림)</li> <li>• 자연, 지방을 선호하는 청년에 호소, 경쟁률 30배, 과거 1년에 1명 채용했던 것이 6개월에 5, 7명 채용할 수 있게 되었음</li> <li>• 도쿄에서 유사한 사무실을 찾으려면 임대료가 몇 배 된다. 통근비만이라도 회사, 사원들의 부담은 상당히 적음</li> <li>• 데이터 관리 일국집중 위험성 분산화</li> </ul>
C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원은 도쿄와 달리 일 이외에서 피로감을 거의 느끼지 않음, 통근시간이 없음</li> <li>• 부부로 육아를 하고 있는 사원인 경우 새틀라이트 오피스에서 매일 아이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음</li> </ul>
D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인 비영리 단체는 전화 걸기·받기 등에 성수기가 있어 일손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대도시에서 구하기 어려움</li> <li>• 새틀라이트 오피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화 걸기·받기 등 업무 대행함</li> <li>• 도쿄 본사에서라도 질병 시 재택 원격근무 가능함(워크 라이프 밸런스)</li> </ul>
E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품 섭외에서도 매입에서도 현지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있지만 일일이 도쿄에서 숙박일정을 포함해 교통비를 몇 만 엔이나 들어 찾아가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음</li> <li>• 더군다나 '도쿄에서 왔다'고 자기소개하면 지역주민에게서 수상한 눈빛을 받음</li> <li>• 새틀라이트 오피스 임대료 상당히 저렴함,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몇 십만 엔 임대료가 가나야마에서는 한 달 2만 5,000엔 정도</li> <li>• 인터넷 판매 때문에 도쿄에서도 가미야마에서도 소비자와의 거리감은 같음</li> </ul>

자료 : 宮坂正太郎, 2012, ヒルズ族よりノマド族(若者、地方へ), 日本經濟新聞(2012年 3月 27日), www.nikkei.com; DUNKSOFT, 2012, 働き方の新しいスタイル-ダンクソフト・サテライトオフィス, www.dunksoft.com; FM眉山, 2012, 東京中央FM 「ツイッターの市」in 神山(2013年 5月 31日), www.ustream.tv/recorded/33570649 재구성.

### 3.2.2.4 가미야마 숙(塾)

NPO법인 글린밸리가 실시하는 '구직자 지원훈련'으로 그 통칭이 '지역 후계자 육성강좌 가미야마숙'이다. '구직자 지원훈련'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인정을 받은 기관이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아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여기서는 전국에서 모인 청년 등이 지역 후계자나 사회적 기업가를 목표로 지역과제 파악과

해결방안을 배우면서 취업이나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

2000년부터 개강한 가미야마 숙은 취업 준비생 진로 지원이 목적이지만 10년 이상 실천해 온 지역 활성화가 교과서이다. 대학생, 취업 준비 중인 자, 아르바이트 등 숙생은 6개월 동안 가미야마에서 살면서 빈집 재생이나 다랭이논 만들기, 숲 만들기 등을 배운다. 이 과정 수료 후 가미야마에

18)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많은 기업들이 기존 근무형태와 기업경영 가치관의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 수도권 중심지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위험성을 실감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할 것이 요구된 것이다.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풍경 속 새틀라이트 오피스는 대도시에서는 좀처럼 실감하기 어려운 달성감이나 뿌듯함이 넘쳐나 단순히 위험성 분산이라는 목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가능성과 매력이 있다(DUNKSOFT, 2012, 働き方の新しいスタイル-ダンクソフト・サテライトオフィス, www.dunksoft.com).

정착하거나 새틀라이트 오피스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일련의 사업으로 가미야마로 20, 30대 부부 등 약 70명이 이주해 왔고(2008년~2011년), 2011년도에는 70년도 이후 처음으로 전입자가 전출자를 웃돌았다. IT기업 1개 회사가 20, 30대 4명을 채용하는 등 고용도 창출되고 있다.

#### 4. 결론 : 종합논의

화려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시해 온 가미야마의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던 인구가 2011년도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를 웃돌았다. 단, 현재 인구는 약 6,400명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젊은 주민은 아직 소수로 과소의 흐름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다.

가미야마에서는 1999년부터 ‘가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KAIR)’ 사업을 시작했다. 예술가를 가미야마로 초빙해 작품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높은 평가를 받는 저명한 예술가 작품을 남기게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모델은 흔히 있지만 가미야마는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저명 예술가 초청 모델로 하려면 2년마다 새로운 작품을 추가하지 않으면 관광객은 반복적으로 오지 않는다. 소규모 지자체에 그러한 모델은 어렵다. 가미야마는 예술가의 작품을 보는 곳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가치 제고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가 체류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쯤 되는 무렵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이주자도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빈집 주인과 이사작업 협력 등 그린벨리에 이주지원 노하우가 축적되었다.

2007년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쿠시마현(徳島

県)이 이주교류지원센터를 8개 기초자치단체에 두었지만 가미야마만 민간(NPO법인 글린벨리)에 운영을 위탁했다. 그동안의 실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주 희망자 정보를 파악하게 되었다.

2008년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고 방문자가 가장 많은 페이지는 ‘가미야마에서 산다’였다. 요컨대 오래된 민가의 빈집 정보이다. 검색 수가 늘어나 이주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의외로 크다는 것이 알게 되었다.

그 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에 더해 ‘워크 인 레지던스’가 추가되었다. 예술가가 가미야마에서 창작이라는 일을 하는 것처럼 산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가미야마로 가져 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가미야마의 미래에 필요한 직종이라면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업인이나 직종을 미리 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돌가마로 굽는 빵집을 개업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 어서 오십시오!’ 그러한 부름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에서부터 ‘워크 인 레지던스’로 확대된 방식은 잘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사람이 사람을 부르게 되었다. 그것이 과소 산촌 인구가 플러스로 변했고 새틀라이트 오피스가 집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업이 가미야마에서 제대로 성립한다면 그것이 무엇보다 지역공헌이 되는 것이다.

새틀라이트 오피스는 기업유치가 아니라 인재유치인 것이다. 지역 특산품처럼 우선적으로 물건이 있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과 사람의 연대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전개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향후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도 유희시설이 있고 광회선 인터넷 정비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식으로 새틀라이트 오피스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 보조금 등 지원규모 경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

다. 그렇게 되면 지원규모만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오게 된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NPO법인 그린벨리와 지자체 간에서 상의하고 있다. 가미야마의 인정과 자연에 매력을 느껴 새로운 근무형태로 본업을 이루고 싶어 하는 기업이 오도록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먼저 희망사항을 밝히고 면접 등을 통한 유치를 하는 것이다.<sup>19)</sup>

기존 지역 특산물 개발, 관광 중심의 지역 활성화와는 명확히 획을 그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뜻 있는 교류를 중심으로 빈집 리모델링, 부동산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가미야마 사례는 이제 시작된 단계이다. 그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인 NPO법인 그린벨리가 있고 지자체가 이주교류지원센터 위탁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귀농 또는 귀촌, 그리고 대규모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직주분리 또는 기업의 입지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적 입지에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이주자를 대상으로 지역내 이주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빈집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교류'라는 개념을 포함한 평생학습, 농업 체험교류 등 새로운 지역간 교류, 세대간 교류 전개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빈집활용이 관리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 한편에서 관련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저소득층 위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가미야마 사례의 시사점은 지역 전체적 수요를 도출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빈집활용을 포함한 종합적 토지정보 구축, 활용에 있어서는 지역 전체적 수요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 및 과정의 중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는 한국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자체, 빈집활용을 접목하는 것에 있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413-B00031).

## 참고문헌

- 박문기, 2010, “자차체 브랜드 성공방안”, *마케팅 리더십*, 14-19.
- 정한철, 2009, 향토음식축제의 관광상품성 및 인지도에 관한 연구 - 충남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최종개정 2007. 6.1 법률 제70호).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최종개정 2012.8.1 법률 제53호)
- 황정임·최윤지·김효정, 2012, “농촌 빈집 소유자들의 빈집 관리·활용 실태 및 인식 분석 - 전북 완주군을 중심으로 -”, *농촌지도와 개발*, 제19권 제4호.
- あしたのコミュニティーラボ, “四国の山里で働くという選択-IT企業が惹きつけられる町・徳島県神山町”, <http://www.ashita-lab.jp>

19) あしたのコミュニティーラボ, 四国の山里で働くという選択-IT企業が惹きつけられる町・徳島県神山町 ([www.ashita-lab.jp/special/637/](http://www.ashita-lab.jp/special/637/)) 참조.

- 坂東幸輔, 2013, “徳島県神山町「空家町屋プロジェクト」”, <http://arch.geidai.ac.jp/Works-1>
- 中小企業診断協会千葉県支部, 2007, *地域特産品の流通チャネルの方向づけ報告書*.
- DUNKSOFT, 2012, “働き方の新しいスタイル—ダンクソフト・サテライトオフィス”, <http://www.dunksoft.com>
- FM眉山, 2012, “東京中央FM「ツイッターの市」 in 神山(2013年 5月 31日)”, <http://www.ustream.tv/recorded/33570649>
- 藤本秀一, 2012, 空き家の再生・活用を通じた地域運営の事例, *オペレーションズ・リサーチ: 経営の科学*, 第57巻 第3号, pp.138-143.
- イン神山, <http://www.in-kamiyama.jp>
- 神山町, 2011, *第4次神山町総合計画*.
- 金子郁容, 2010, “いいコミュニティの作り方”, *コミュニティのちから—遠慮がちな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の発見*.
- 宮坂正太郎, 2012, “ヒルズ族よりノマド族(若者、地方へ)”, 日本経済新聞(2012年 3月 27日字), <http://www.nikkei.com>
- 大高研道, 2005, “社会的排除と社会的経済—北アイルランドにおける社会的経済セクターの現段階—”, *北海学園大学経営論集*, 第2巻 第4号.
- 新建築社, 2012, *新建築*, 8月号.
- 帯刀治, 2004, “まちづくりに取り組むNPO”, *社会運動研究入門—社会運動研究の理論と技法*.
- 帯刀治, 2013, “大震災・大津波、液状化被害、東電福島第一原発放射性物質流出事故と防災体制—茨城の事例—”, *茨城大学人文学部紀要*, 第55号.
- 後房雄, 2004, 自立と協働の両立は可能か—日本のNPOセクターが直面する課題, *市政研究*, 第143号.
- 結城登美雄, 2009, *地元学からの出発—この土地を生きた人びとの声に耳を傾ける*.
- R. D. Putnam,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